



Apa khabar? khabar baik. Terima kasih. Bagaimana dengan anda?

How are you? i'm fine. thank U. and U?

-RaonAtti 5th. 말레이시아팀 9월 활동보고서

윤무종 (Louis)

문 기 (Ki)

김지은 (Julie)

김진아 (Jina)

해애언 (Alice)

RaonAtti 5th. 3월 일정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 | 1 | 2 | 3 | 4 | 5 |
| | | | | 말레이시아 도착 | | CODA |
| 6 | 7 w i s m a harapan BM | 8 w i s m a harapan BM | 9 w i s m a harapan BM | 10 w i s m a harapan BM p a s a r malam | 11 w i s m a harapan BM | 12 melaka |
| 13 melaka | 14 BM s i g n Language | 15 BM s i g n Language C h i n a Town | 16 BM s i g n Language Y M C A Youth Club | 17 BM s i g n Language | 18 BM s i g n Language Y M C A D e a f Club | 19 CODA Sandy 집 |
| 20 Z O O Volunteer | 21 s i g n Language | 22 s i g n Language P M Y | 23 s i g n Language P M Y | 24 P M Y l i t t l e i n d i a | 25 P M Y n a t i o n a l m u s e u m | 26 CODA Y M C A Youth Club |
| 27 | 28 | 29 Bethany Home 출발 | 30 | 31 | | |

1. 말레이시아 도착



말레이시아의 첫 인상, 어땠니?

애연: 동남아 특유의 분위기 때문에 무지 설렜다.

문기: 한국의 도시에서와 같은 그런 탁한 공기, 무더위, 그래서 확장된 나의 땀구멍. 땀이 분출하기 시작했다.

진아: 한번 와 본적 있었지만, 그전과는 또 다른 느낌이었다. 저번에는 관광을 위한 목적으로 둘러보기 바빴지만, 이번에는 지역사회에 스며들어 말레이시아의 Local을 경험하려고 하는 설렘 때문인 것 같다.

지은: 처음으로 밟아본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땅, 그곳에서 경험한 말레이시아의 냄새, 말레이시아 맛, 잊을 수 없다. 5개월의 생활이 너무 기대된다.

무종: 처음 온 외국이라 그런지 기대감이 컸다. 도착하고 보니 열대의 기후를 들은 것 이상으로 훨씬 후덥지근했었다. 말레이시아라는 곳은 여러 문화, 여러 인종이 한 대 어우러져 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놀라웠고, 모든 사람이 영어를 구사한다는 것이 나를 위축되게 만들었다.

2. wisma harapan



말레이시아에 도착한 후 KL에 머무는 동안, 4월 Bethany Home 활동을 위해 wisma harapan에서 다운증후군, 자폐증, 지적장애 아동들을 대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wisma harapan은 정신장애아동들과 청소년들에게 기본교육을 제공하고 그들의 잠재력을 깨달을 수 있게 훈련을 시키는 기관인데, 우리는 이곳에서 각 class와 vocational centre에서 의 보조교사로 활동을 하고, 우리가 준비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해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봉투 접기와 모금함 만들기, 교실꾸미기, 청소 등 wisma harapan의 다양한 활동을 경험했다.

보조교사 활동은 어땠어?

문기: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해 본적이 없어서, 약간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보조교사로 활동을 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두려움을 없앨 수 있었다. 이것이 내가 wisma harapan에서 얻은 가장 큰 수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무중: 말레이시아에 와서 하는 첫 공식적인 활동이었는데, 이중 클레이를 하는 시간이 있었지, 이때 우리의 사고방식대로 접근해서 생각했던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Bethany에서의 활동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었고, 이후 활동에서도 도움이 되었다. 또 보조교사 활동 중 아동들이 춤추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장애인도 자신의 희로애락을 표현할 줄 알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은: 우리가 Class에서 했던 첫 클레이수업! 많이 부족했지만, 나름 만족할 수 있었어. 그리고 vocational centre에서 했던 바구니 만들기는 한국에서도 활용될 수 있을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애연: 함께했던 시간이 일주일이었다는 게 너무 짧아서 아쉬워. 이 기간 동안에 함께했던, 나를 잘 따라 줬던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wisma harapan은 기억이 남을 것 같아.



진아: 우리가 강당에서 체육활동을 하던 날, 한 아동이 내 가방을 떨어뜨렸는데, 그 안에 있던 카메라도 떨어지면서 망가져버렸다... 난 그날 하루 종일 패닉이었다. 결국 그건 관리 못한 내 잘못이었다.

3. Bahasa Malaysia(BM)

말레이시아는 영어와 바하사, 중국어가 공용어이다. 더군다나 Bethany home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BM어를 쓴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KL에 머무는 동안 2주에 걸쳐 cikgu noorita에게 BM를 배웠다. 국내 훈련시 BM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말레이시아에 도착해 BM를 배우는 동안 몇몇의 팀원들은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중 특히 해애연단원 마치 물 만난 고기마냥 BM에 재미를 들여 매일매일 새로운 단어를 외워 다른 단원들을 괴롭혔다. 또한 BM를 힘들어 하는 단원들을 위해 문장 만들기 와 역할극을 통해 BM를 쉽게 공부할 수 있었고, Noorita가 수업중간 말레이시아의 문화와 역사, 전설에 대해 이야기해주어서 말레이시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무중: 바하사를 조금이라도 배우게 됨으로써 이곳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었다. 식당, 쇼핑물, 길 거리 등등. 항상 수업이 끝난 후에 '복습을 해야지...'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하지 못했다. 그게 제일 아쉽다. 마음을 약간 고쳐먹어야 할 것 같다.

지은: 바하사가 너무 어려웠다. 그래서 수업시간에 나는 열등생이었다, 국내훈련때 '바하사도 공부했다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었다. 시간날 때 틈틈이 공부 좀 해야겠다.

문기: satu dua tiga mula....이제 정말 시작이다! 수업 때는 잘 따라가지 못했지만, 적극성과 미소를 가지고 수업에 임했고, 그로인해 수업을 즐길 수 있었다.

애연: 수업시간에 배웠던 것을 wisma harapan에서 바로 사용해 볼 수 있었는데, 막상 말이 통하니 신기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쓸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열심히 배우고 싶었다. 나 스스로 즐겁게 수업에 임했다!

진야: 바하사를 배움으로써 말레이시아라는 나라에 대해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어서 좋았다. 그리고 노래를 배움으로써 바하사를 좀 더 쉽게 배울 수 있었던 것 같다.



4. 수화



우리는 말레이시아 페낭Y에서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을 한다. 그래서 BM 이외에도 말레이시아 수화를 배웠다. 국내훈련시에 미국수화를 배웠던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 말레이수화와 미국 수화가 비슷한 부분이 많아, KL YMCA에 도착하자마자 deaf staff들과도 별 어려움 없이 소통할 수 있었다. 또한 수화수업시에도 수화선생님이자 우리의 친구인 sandy가 지루하지 않고,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였다. visual gesture communication(VGC)을 통해 표정, 몸짓도 deaf와 소통하는데 중요한 일부분임을 알게 하였다. 그리고 게임과 그림을 통해 단어를 쉽게 기억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수화수업 이외에도 Deaf와 식사를 통해 일상에서 수화를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 주었다. 나중에는 팀원들끼리 대화를 하면서 수화를 같이 사용하기도 하는 등 그동안 정말 열심히 수화를 배웠구나하는 생각이 들었고, Bethany Home에서 수화를 쓰지 않겠지만, 나중에 수화를 쓸 때에 몸이 수화를 익혔기 때문에 걱정이 없다는 이야기를 우리끼리 하곤 한다.

애연: 수화 수업에서 배운 것 보다 staff들과 이야기 하면서 더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렇지만 1:1로 이야기하는 건 조금 힘들었다.

나에 비해 다른 팀원들은 잘하는 것 같아 부러웠다. 특히 문기단원이 부러웠다. 부러우면

지는거렸는데, 난 졌다.

문기: 일반인들과 영어로 대화하는 것보다 청각장애인과 수화로 소통하는 게 더 편했던 것 같다. 항상 함께한 YMCA Deaf staff들에게 감사하다. 아마 이분들 덕분에 내가 말레이시아 수화를 더 쉽게 배울 수 있었고, 더 잘 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지은: 말레이시아 수화를 사용하다보면 나도 모르게 한국수화와 섞인다. 그게 조금 어려웠던 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렇지만 한국 수화를 할 줄 아는 staff도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영어로 표현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표현하는데 도움이 되었고, KL에 있는 동안 거의 매일을 Deaf staff들과 함께했기 때문에, 수화향상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수화도 하나의 언어인데, 이에 쉽게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같다.

진아: 국내훈련때 수화를 처음 접했기 때문에, 표현하는데 많이 어려움이 있었고, 자연스럽게 못했는데, KL에 와서 VGC를 통해 표정, 몸짓과 같이 표현하는 방식부터 배울 수 있어서 좋았고, 이후 연극에서도 내가 놓치고 있던 부분까지 체크해줘서 고칠 수 있었다. 그리고 수화수업 이후에도 Deaf들과 함께하면서 Deaf 문화에 대해 알 수 있었다.

무중: Deaf staff들이 우리에게 계속 수화로 말을 걸어줬는데, 나는 거기에 주눅이 들어 조금 피하려고 했었던 것 같다. 항상 그 점에 미안함을 가지고 있지만 아마 자신감이 부족해 그랬던 것 같다. 그리고 Sandy와 친해지고 난 후 수화수업을 받게 되어서 수업에 부담감이 없어서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다. 하지만 이것도 BM와 마찬가지로 복습을 안 해 후회된다. 항상 그게 문제인 것 같다.

5. CODA&PMY



KL YMCA의 사업으로써 CODA(Children of Deaf Adults)는 청각장애인 부모를 둔 아동을 대상으로 매주 토요일 진행되는 프로그램이고, PMY는 Deaf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우리는 CODA와 PMY에 3번씩 들어가서 수업을 진행하였다. CODA에서는 빵공작견학, Lake garden picnic 그리고 클레이아트, 율동, 음식 만들기 수업을 진행 하였다. 특히 한국음식 만들기를 할 때에 주먹밥과 계란말이 만들기를 했는데, 평소 아이들이 잘 먹지 않는 채소들을 이용하여 만든 음식이 아이들에게 반응이 좋아 선생님도 아주 만족하셨다. PMY에서는 수영장방문, 율동,

따조만들기, 클레이아트, 풍선아트, 페인스페인팅, 체육활동을 진행하였다. 처음 울동을 할 때에 Deaf아이들을 대상으로 울동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졌지만, 아이들이 너무 재밌어하고, 즐거워해서 우리가 Deaf는 노래를 들을 수 없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 잘못된것이라는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페인스페인팅을 할 때에도 사전에 선생님이 아이들이 싫어할것이라해서 염려했었는데, 우리가 각자의 얼굴을 먼저그림으로써 아이들에게 거부감을 없애 함께 즐길 수 있었던 프로그램이었던것 같다. 그리고 따조만들기를 할 때에 샘플로 준비해간 작품을 보고 아이들이 똑같이 그렸다. 우리가 그전에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준비해가야 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PMY소감 한마디

애연: 아이들이 대상이라 그런지 다 똑같은 아이들이라는 생각이 든다. 별다른 차이점을 느끼지 못했다. 그리고 아이들이 어려서 수화를 잘 사용하지 못하는 줄 알았는데, 선생님과 아이들이 수화로 대화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잘 못했던 것이구나.....라는 것을 느꼈다. 내가 아이들과 더 친해지고, 수화를 좀 더 했더라면 아이들과 소통이 더 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진야: 처음 PMY수업 준비할 때 이걸 어떻게 수화로 진행할까 걱정을 했다. 그리고 못 듣기 때문에 당연히 음악을 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내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아이들도 똑같은 아이들이구나.....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의 친구였던 esther가 선생님이로 근무해 조금 더 잘해야겠다는 부담감도 있었다.

지은: 말을 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어떻게 아이들을 집중시킬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고 수화단어를 통해 이해시킬 때, 너무 감동적이었다.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말로써가 아니라 눈으로, 손으로 그렇게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문기: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들이 대단한 것 같다. Deaf선생님이 Deaf아이들을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교육적인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무중: 전반적으로 우리가 그동안에 있었던 프로그램들에서 시행착오를 겪고 우리끼리 PMY를 위

해 많이 준비했는데, 다 못보여준게 아쉽다. 그렇지만 나를 잘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었기 때문에 좋았다.



CODA소감 한마디

애연: 처음 CODA아이들과 만나는 자리는 너무 부산스러웠다. 이후 다시 만났던 picnic때는 아이들이 기억했는지 반겨주어 너무 고맙았다. 또 많은 프로그램들이 자원봉사자들과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그 분들이 아이들 한명한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진아: CODA담당자인 Woon이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좋았다. CODA는 주된 프로그램이 아니었지만 PMY아이들만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서 좋았고, 봉사자들과도 함께 이야기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서 좋았다.

지은: Lake Garden으로 picnic을 갈 때에 부모님과 아동이 모두 함께 갔는데, 부모와 아동이 수화로 소통하는 모습을 보고 힘들 것 같다는 것은 나만의 잘못된 생각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CODA프로그램을 함께 하는 봉사자들을 보면서 'Deaf, 수화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봉사활동통해 그들을 알아가고 이해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문기: 봉사자들과 함께 했던 점심식사 자리에서 내가 CODA라는 이유로 여러 질문을 했다. 평소 나의 자라온 환경에 대해 남들과 다르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내게 특별한 관심을 보여서 조금 부담스러웠다.

무중: 빵공장 견학이 우리가 말레이시아에 온 후 첫 활동이었는데 그곳에서 내가 만난 아동은 중국어 밖에 할 줄 몰랐다. 마음으로 다가가서 친해졌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결국 한 대 맞고 헤어졌다. 내게 거부감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가 2번째 프로그램을 할 때엔 못 만났지만 나중에 lake garden에서 다시 만났을 때, 아동이 나를 못알아보는건지 피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아이의 마음에 내가 어떤 인상으로 남았을지 조금 아쉬웠다.

7. 그 외 활동



YMCA Youth club과 함께 했던 60캠페인

지구의 날을 맞이하여 지구를 살리자는 취지에 맞춰 한 시간동안 건물의 전등을 소등하는 캠페인이었다. 물론 한국에도 비슷한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특히 최근 상황과 맞물려서 일어난 일본 쓰나미 사상자를 기리기 위한 추모도 하였다. 이 활동 전에 잠깐 Y Youth친구들을 만나 미팅을 하였었는데 이 날 행사를 위해 오래간만에 다시 만나게 된 Youth Club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행사를 진행하면서 불을 끄고 양초만을 이용해 방을 밝힌 뒤에 우리나라와 말레이시아의 문화를 공유하면서 게임을 진행했고, 리더쉽을 키우는 방법을 배우기도 했다.



Deaf Club

KL YMCA에서 Deaf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중 아이스하키팀을 후원하는 것이 있었다. 마침 우리가 머무는 동안 국가대표를 포함한 아이스하키팀 전체 공개 연습이 있었다. 그 기회를 삼아서 우리는 말레이시아에 단 하나밖에 없는 아이스링크장이 있는 sunway pyramid를 방문하게 되었고 Deaf 하키팀을 만날 수 있었다. 하키팀은 Deaf멤버들이 반 비장애인 반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여느 Deaf들과 마찬가지로 이들은 매우 밝아 보였고 연습 후 방송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미래에 아이스하키에 대한 꿈을 가지고 지금 열심히 하고있다는 Deaf청소년들을 보면서 그들의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



Deaf Beat

KL YMCA의 deaf들을 위한 또 다른 프로그램으로 deaf beat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다. 데프비트는 우리나라의 난타와 비슷했는데 오직 deaf들로만 이루어진 팀이었다. 데프비트는 상당히 성공적으로 조직되어 있는 팀으로 매년 공연을 할 때 마다 성황리에 이루어진다고 한다. 그들은 우리가 묵고 있는 KL YMCA HOTEL 밑에 매 주마다 연습을 했는데, 우리의 수화 선생님이었던 Sandy가 이 팀의 일원이었다. 우리가 구경하고 싶단 얘기를 듣고 함께 연습에 참여하게 되었고, 연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는 함께 연주하는 방법도 배우고 연주도 해보았다. 그리고 모든

팀원이 모이고 연주시간이 되었을 때에는 그들의 연습을 지켜볼 수 있었다. 그들은 매우 진지한 자세로 연습에 임했고, 소리가 아닌 단지 진동만으로 서로를 맞추고 음악을 느끼는 모습에 우리는 감탄을 금할 수 없었다. 그들의 연주소리는 땅을 통해 우리의 가슴을 울렸고 장애를 뛰어넘어 연주를 할 수 있다는 모습을 직접 보면서 또다시 새로운 깨달음을 알게 되었다.



Negara Zoo

이 활동은 계획에 없었던 활동인데 주말을 이용하여 우리가 자청해서 만든 프로그램이다. KL YMCA에서는 매주 일요일마다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여 국립 동물원에 봉사활동을 가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 전단지를 보고 자청하여 활동을 하게 되었다. 오랜 고민 끝에 동물을 무서워 하는 김지은 단원은 결국 활동을 포기하게 되었지만 Y Youth 멤버 두 명과 함께 동행하게 되었다. 이곳에서 문기 단원과 해애연 단원은 곰과 박쥐, 캥거루 그리고 사슴의 우리를 청소하고 먹이를 주는 활동을 하게 되었고, 윤무종 단원과 김진아 단원은 하마, 원숭이, 혼빌 그리고 아기 동물들의 우리를 청소하고 먹이를 주는 활동을 하게 되었다. 활동은 처음해보는 활동이라 약간의 거부감이 느껴 질 수 있었지만 이내 적응하게 되었고, 큰 어려움 없이 마칠 수 있었다. 동물들을 바로 코앞에서 볼 수 있었다는 것도 신기했고 한국에서도 하기 힘든 활동을 겪어볼 수 있어서 뜻 깊은 시간이었다.







말라카여행

또 다른 주말 프로그램으로 말레이시아의 역사적 도시 Melaka로 여행을 다녀오게 되었다. 말라카는 옛날 말레이시아의 수도로써 역사적으로 중요한 도시이다. 말라카는 바다를 끼고 있어 유럽 강대국들의 침략을 많이 받아 저항했고, 말레이시아 안의 또 다른 이국적 느낌이 강했다. 이 곳은 전쟁이 많이 일어나 황폐해진 공간이라 전쟁의 유적들을 많이 구경할 수 있었고, 관광 도시로써의 발달로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해주었던 도시였다. 우리의 deaf 친구인 Josephin부부가 또 다른 친구들을 소개시켜 주었고, 이분들과 deaf친구들인 esther, sandy와 함께 여행했던 소중한 추억이 되었다. 새롭게 만나게 된 분 중에 비장애인으로써 함께 가게 되었던 사업가 분이 계셨는데 이분 덕분에 우리는 여행 내내 신세를 많이 지게 되면서 호강(?)하게 되었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말라카에 있는 말레이시아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satay(우리나라의 꼬치 비슷한 음식) 음식점을 가게 되었는데 무려서 세 시간이나 줄을 서서 기다렸고, 너무 배가 고프 나머지 모두들 정신없이 먹다보니 satay를 1인당 거의 30개씩이나 먹게 되었다. 그 외에도 리버 크루즈를 타고 말라카의 강가를 구경할 수 있었고, 우리가 가 본 곳 중에서 가장 거대한 pasar malam(한국의 야시장 개념)을 구경하게 되었던 즐거운 여행이었다.



sandy's house

말라카에서 돌아오는 길에 Sandy를 집에 내려주면서 그녀의 집을 밖에서나마 잠시 구경할 수 있었는데, 우리는 매일 숙소에만 있어서 몰랐던 말레이시아의 전형적인 로컬 집이었다. 우리는 잠시나마였지만 보았던 그녀의 집을 구경하고 싶다고 그녀에게 부탁하게 되었고, 그녀는 흔쾌히 승낙하여 그녀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다. 그녀의 집은 역시나 우리가 생각했던 이상으로 로컬의 분위기(?)가 물씬 났으며 6남매의 대가족과 함께 집안 곳곳에 도마뱀이 살고 있었다. 우리가 매운 것을 좋아한다고 하자 그녀의 집 주변에 있는 아주 매운 satay 집으로 데려다 준다고 했지만 가는 날이 장날이라 그런지 문이 닫혀 있었다. 결국 아쉽지만 다른 곳에서 저녁을 함께 하였고 우리와 sandy가 더욱 친밀해 질 수 있던 시간이었다.